

주간 규제 정보

Vol. 425

2022. 11. 21 ~ 2022. 11. 27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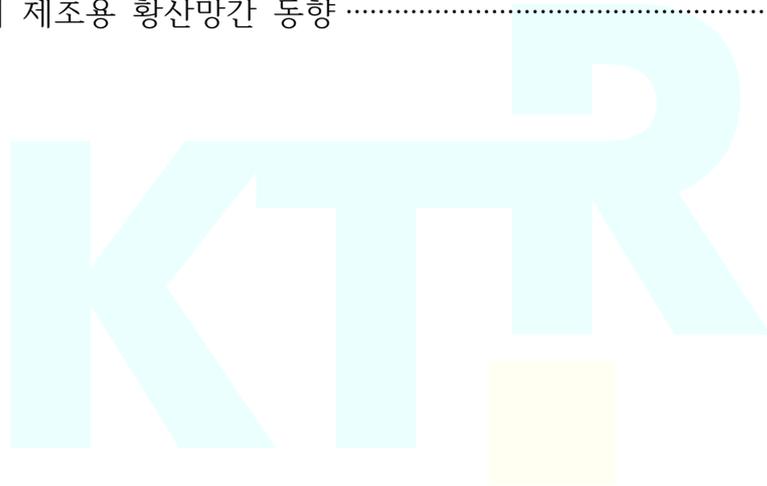
1. 전기용품 안전기준(130종) 폐지 행정예고 3
2. 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 3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 4
4.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 5
5.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6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6. 아르헨티나, Mercosur 통합 화장품 라벨링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 및 시행 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미국 가스레인지 시장동향 9
8. 싱가포르 바다케어 제품 시장동향 13
9. 일본 액세서리 주얼리 시장 동향 17
10. 중국 이차전지 제조용 황산망간 동향 2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전기용품 안전기준(130종) 폐지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3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30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붙임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

-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5~18) 참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
-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 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 정정고시

관보 제20359호(2022. 10. 25.)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2종) 개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p>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KC 60335-2-84)</p> <p>부 칙(고시 제2022-0458호, 2022.10.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5.9.23.)은 1년 후 (2023.10.24.)까지 병행 적용한다.</p>	<p>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KC 60335-2-84)</p> <p>부 칙(고시 제2022-0458호, 2022.10.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6.2.19.)은 1년 후 (2023.10.24.)까지 병행 적용한다.</p>	부칙 정정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

- ‘기업 업무시스템 및 자동화(ISO/TC184/SC5)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
- 우리나라가 제안한 ‘가상 생산 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추진 -

- 제조 기업의 업무시스템과 생산자동화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스마트제조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내외 스마트제조 표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업무시스템 등*의 통합운용 및 상호운용성을 논의하는 ISO/TC184/SC5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했다.
- * 제조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 기업의 업무시스템

< ISO/TC184/SC5 국제표준화 회의 개요 >

- 기술 분야 : 기업 업무시스템과 자동화 응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통합 및 아키텍처
- 일시 / 장소 : 2022년 11월 21일(월) ~ 23일(수) / 제주 해비치호텔
- 참석 : 미국(10명), 중국(7명), 일본·독일·프랑스·멕시코(각 2명), 스웨덴·이스라엘(각 1명), 한국(15명) 등 온·오프라인으로 40여명 참석
- 주요 일정 : 총회(21, 23일), 작업반 회의(21~22일), 국제컨퍼런스(22일)
-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 기업 업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저장방식, 상호운영 절차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표준의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우리나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 통합 관련 '가상 생산 시스템' 표준*은 국제표준안(DIS)**으로 진행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 ISO DIS 16400-3 '가상 생산 시스템의 제조설비 동작 명세서'

** 국제표준 제정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 그리고 동 표준안은 실제 제품 생산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서 병목 개선, 디지털트윈 기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 업무시스템 간 데이터교환(KS X 9101)' 국가표준 개발 성과와 전기차·가전·조선·소재부품 등 4개 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안 제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가 KS X 9101의 데이터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 간의 제조데이터를 연동시킨 사례 등 소개

□ 국표원은 이와 병행하여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스마트제조 표준의 활용, 확산을 위한 『미래공장 표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업 업무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법, 공정의 생산성을 지표화하는 방법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표원은 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제조 표준의 확산을 위해 국내외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 “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표준안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5.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 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개요〉

- ❖ 기 간 : '22.8.29.(월) ~ 9.30.(금), (5주간)
- ❖ 참여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등 720개 기관
- ❖ 점검대상 : 전국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점검방법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 집중점검

-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벌칙금 47억 원을 부과하였다.
 - * 강풍 등으로 노후·훼손된 안전표지, 제설작업 등으로 마모·훼손된 횡단보도, 안전 울타리(펜스)·과속방지턱, 신호등 전구 불량 등 점검
-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하였다.
-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6. 아르헨티나, Mercosur 통합 화장품 라벨링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 및 시행

9월 29일, 아르헨티나는 화장품 등 기타 개인관리 제품에 중남미국가연합(Mercosur)의 통합 화장품 라벨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고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고시된 자국의 아르헨티나 국립 의약품, 식품 및 의료 기기 관리국(Anmat*)의 표준 7809/2022로 고시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dministration of Drugs, Foods and Medical Devices

○ 라벨링 요구사항의 간소화

신규 고시된 표준에 의하면 화장품 등의 제품에 1차 또는 2차 패키지 라벨링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Mercosur 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통합하여 제품 이름, 브랜드, 로트/일치 번호 및 경고/사용 제한이 포함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정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해 1차 또는 2차 포장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등록 정보, 유효 기간, 순 함량, 홀더 데이터, 고객 서비스 정보 및 성분은 2차 포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차 포장이 없는 경우 모든 필수 정보는 제품의 1차 포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 신규 도입

개정 고시된 표준 3장에서 언급되는 제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설명하는 내용은 신규 도입된 부분으로써 소비자가 부적절한 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진실하며 충분"해야 합니다. 특히, 라벨에는 제품의 "속성, 출처/성질, 원산지, 구성, 허용된 사용 목적 또는 안전"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 기만 또는 혼동"시키는 상표명, 브랜드, 이미지, 전자 링크 또는 문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충제 또는 소독제와 같은 제품의 경우 완전한 제거 또는 보호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라벨에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향균 작용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향균 특성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제품 범주의 추가

모발 미백제 및 염료, 불소가 함유된 치약 및 구강 세척제, 발한 억제제 제품 등을 포함하여 특정 라벨이 필요한 일부 제품에 대해 새로운 카테고리도 추가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Mercosur 규정을 자국 규정으로 수용함으로써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경제 구역의 가장 큰 두 국가는 이제 Mercosur 규정 48/2021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본 라벨링 규정은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25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Aviso/primera/272755/20220929>

<https://normas.mercosur.int/public/normativas/4236>(Mercosur 규정)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미국 가스레인지 시장동향

- 미국 가스레인지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고가 및 다기능 제품에 대한 수요 늘어
- GE, Whirlpool, Electrolux AB 등 브랜드가 인기

상품명 및 HS 코드

가스레인지의 HS코드는 7321.11이며, 철 또는 강철로 만들어진, 가스 및 기타 혹은 다중 연료를 사용하는 요리기구 및 플레이트 워머(Cooking appliances and plate warmers; for gas fuel or for both gas and other fuels, of iron or steel)로 정의된다. 73은 철 또는 강철, 7321은 요리 기구(스토브, 레인지, 플레이트 워머, 가스 링, 바베큐 그릴 등)를 뜻한다.

가스레인지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는 2021년 기준 미국 가스레인지의 시장 규모는 15억 달러이며, 2028년까지 2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연평균 7.7%)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 배경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이 잘 구축되었고,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도 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주택 보유자가 크게 늘었고 주택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평균 금액 또한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시장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모듈형 부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스레인지와 같은 조리 기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추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디자인 차별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가스레인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요인으로는 가격, 크기, 기능 등 다양하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00달러 이상 고급 제품이 전체 매출액의 48%를 차지하였다. 고급 가스레인지 제품의 주요 판매업체로는 Viking, KitchenAid, Thermador, Dacor Monogram과 Bertazzoni 등이 있다. 추가로, 3,000~4,999달러의 중고가 제품은 연평균 성장률(CAGR)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

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연료/에너지 사용 가능 여부, 전자레인지와 오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 및 오븐 크기가 크고 레인지의 수가 많은 제품군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가스레인지 크기로는 30인치 이상의 제품의 수요가 전체 시장에서 60%를 차지하였다. 30인치 제품도 30인치 이상 제품 다음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고, 2028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가스레인지 수입 동향 및 수입 규모

시장조사기관 HIS Markit에 따르면, HS코드 7321.11과 그 하위 분류에 대한 미국의 2021년 수입액은 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7%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멕시코, 태국, 한국 등이며 중국 수입 제품이 전체 수입액이 50% 이상 차지했다. 2021년 수입액 중 터키로부터의 수입액 증가율이 396.5%로 가장 컸으며, 수입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2021년 1억 천만 달러로 2020년 대비 44.6%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미국의 가스레인지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수입 증가율 21/20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세 계	1,945	2,294	2,814	100	100	100	22.7
1	중 국	994	1,259	1,568	51.1	54.9	55.7	24.5
2	멕시코	518	569	684	26.6	24.8	24.3	20.2
3	태 국	276	280	276	14.2	12.2	9.8	-1.2
4	한 국	64	81	118	3.3	3.6	4.2	44.6
5	이탈리아	37	38	66	1.9	1.7	2.4	74.2
6	캐나다	18	22	37	0.9	1.0	1.3	70.2
7	독 일	8	7	12	0.4	0.3	0.4	71.0
8	프랑스	8	8	11	0.4	0.4	0.4	32.4
9	대 만	5	8	10	0.3	0.4	0.4	28.1
10	터 키	1	0.9	48	0.1	0.0	0.2	396.5

주 : HS코드 732111 기준

[자료 : IHS Markit]

가스레인지 유통구조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 내 가스레인지 및 오븐의 유통구조는 1, 2차 공급업체와 1, 2차 바이어로 구분된다. 2차 공급업체는 1차 공급업체에 원자재, 제조 기기 및 부품, 생산 시 필요한 전력을 납품 및 공급하고 1차 공급업체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완제품 제조업체로 전달한다. 가스레인지 제품의 1차 바이어는 소비자 가전 업체와 가전기기 업체이며 2차 바이어는 백화점, 아파트 대여 업체 주택 건설업체 등이다.

<미국 가스레인지 및 오븐 유통구조>



[자료 : IBIS World]

관세율 및 인증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는 무관세 품목이며 한-미 FTA 협정세율 대상이 아니나, 휴대용(Portable) 가스레인지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 한하여 5.7%의 관세가 붙는다. 관세가 붙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 호주, 바레인, 칠레, 모로코 등이 있다.

가스레인지의 미국 수입 시, 인증은 우선 미국 식약청(FDA)의 CFR이라고도 불리는 연방규정 21항을 만족해야 한다. 본 항목은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식품이외의 물질을 확인하고 음식에 첨가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입 시, 가스레인지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의 소비자 안전법안 규제를 받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 법안에 따라 모든 수입 제품은 안전성 시험 테스트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경쟁 동향

시장 조사 기관 Future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가스레인지 브랜드로는 Electrolux AB, LG, GE, Whirlpool, Samsung, Frigidaire 등의 다양한 기업이 있다. 동 기관이 뽑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경쟁 요소로는 AI와 스마트 스피커 등의 첨단 기술의 접목, 사용 편의도 및 가격 등이 있다. IBIS Worl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 가스레인지 시장 점유율은 Whirlpool이 61.5%, Electrolux AB가 20.3%, GE가 18.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판매업체 및 제품

현지 가전기기 정보 웹사이트인 Good Housekeeping, Tom's Guide와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추천 가스레인지 제품에는 LG와 삼성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천 사유로 가격, 다양한 기능 및 출력 성능 등을 꼽았다.

<미국 각종 웹사이트가 추천하는 가스레인지 리스트 종합>

순 번	제품명	가 격 (US\$)	브랜드	사 진	평 가
1	JGB635REKSS	793	GE		경제성
2	LRGL5825F	999.99	LG		고출력 및 스마트 스피커 연동 가능
3	NX60T8711SS/AA	2,399	삼성		에어 프라이기 탑재
4	800 Series HGI8056UC	2,300	Bosch		높은 내구성
5	GCRG3060A	1,000	Frigidaire Gallery		경제성 및 에어 프라이기 탑재

6	WFG320M0B	828	Whirlpool		경제성
7	HR1124G	2,595	Miele		소리 특화

[자료: GoodHousekeeping, Tom's Guide, NYT]

시사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 및 조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늘었고 이는 가스레인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 가스레인지는 기존처럼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을 찾기보다는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함을 제공하는 제품을 찾는 경향이 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율이 높아져 신규 제품 구매가 늘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포인트이다.

자료: FDA, Good House Keeping, Grand View Research, IBIS World, The New York Times, Tom's Guide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 자료

출처 ([KOTRA해의시장뉴스](#))

8. 싱가포르 바디케어 제품 시장동향

- 건강에 대한 인식 확대됨에 따른 바디케어 제품 수요 증가

상품명: 목욕용 제품 및 기타(HS코드: 330790)

시장동향 및 개요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싱가포르 바디케어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2022년 4.61%, 2023년 역시 4%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2021년 시장 규모는 1억17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대비 4.46%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위생 및 청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대되며 유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바디케어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전년대비)
2018	102.8	1.08
2019	104.4	1.56
2020	112.1	7.38
2021	117.1	4.46
2022 (예상치)	122.5	4.61
2023 (예상치)	127.5	4.08

[자료: Euromonitor]

<싱가포르 바디케어 카테고리별 2021년 판매액 및 성장률>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

카테고리	판매액	성장률(전년대비)
고체비누	2.9	0
바디 파우더	3.9	-6.8
바디워시/샤워젤	82	6.0
손 세정제	3.2	-5.6
여성청결제	10.9	1.8
액체비누	14.2	4.3

[자료: Euromonitor]

바디케어 제품은 2021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4.46% 상승한 약 1억1700만 싱가포르 달러이다. 그중 바디워시 및 샤워젤 제품군의 판매액이 8200만 싱가포르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장률 또한 6%로 타 품목군 대비 성장세가 가장 높았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 건강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더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2021년엔 실내 운동시설이 몇 달 동안 문을 닫았지만 소비자들은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야외 운동, 공원 산책 등의 활동을 통해 운동을 점차 생활화했다. 유로모니터는 이러한 소비자 태도 변화를 통해 건강을 생각한 활동량의 변화에 따라 샤워 제품 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바디케어 제품 수입 규모 및 동향

싱가포르의 2021년 '목욕용 제품 및 기타(HS코드 330790)' 총 수입액은 약 5232만 미국 달러로 전년대비 6.68% 증가율을 보였다. Global Trade Atla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주요 수입국으로는 대한민국,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이다.

<싱가포르 목욕용 제품 및 기타 수입동향 (HS코드 330790 기준)>

(단위: 천 미국 달러, %)

순위	국가	수입규모 및 성장률			점유율			증감률 ('21 / '20)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대한민국	3,483	5,994	10,665	5.01	11.91	20.38	77.94
2	중국	5,221	6,778	8,713	7.51	13.47	16.65	28.54

3	미국	8,908	5,212	6,874	12.82	10.36	13.14	31.88
4	말레이시아	5,582	5,337	5,019	8.03	10.61	9.59	-5.95
5	베트남	1,804	1,697	4,031	2.60	3.37	7.70	137.56
6	프랑스	3,780	3,350	2,931	5.44	6.66	5.60	-12.51
7	인도네시아	1,177	2,417	2,432	1.69	4.80	4.65	0.61
8	일본	4,965	7,844	2,375	7.14	15.59	4.54	-69.72
9	아일랜드	144	928	2,058	0.21	1.84	3.93	121.76
10	호주	658	653	1,266	0.95	1.30	2.42	93.97
전체		69,500	50,317	52,323	100.00	100.00	100.00	6.68

[자료: Global Trade Atlas]

참고로 바디케어 제품은 세부 분류에 따라 HS코드 340130(유기계면활성 제품)으로도 구분 가능하다.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HS코드 340130 품목에 대한 싱가포르의 2021년 총 수입액은 1억 5665만 미국 달러이며 그중 한국 수입액은 311만 달러로 총 12위를 차지했다.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싱가포르 바디케어 시장에는 글로벌 기업의 제품 진출이 활발하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싱가포르 바디케어 시장은 3개 브랜드(Dettol, lifebuoy, Dove)가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3개 브랜드의 싱가포르 시장 내 점유율이 31.4%로 확인된다.

환경 및 윤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바디케어 제품 제조사에서도 해당 시장 내 흐름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이미지에 기반한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Unilever는 2020년에 Lux Botanicals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오래 지속되는 향기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지를 활용한 제품이다.



[자료: 브랜드 자사 웹사이트]

유통 채널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은 바디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한 구매 채널이 되었으며 소비자는 온라인 결제·택배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 구매를 지속하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Lazada 및 Shopee와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할인 이벤트 및 판촉 행사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지속 촉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실제 매장 보다 더 다양한 제품을 판매 하며, 지속적인 온라인 구매자 유입에 노력하고 있다.

관세율·수입규제·인증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어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제품 등 4개 품목군 외 전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품용역세(Goods & Service Tax) 7%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8%, 2024년 9%로 GST를 단계적 인상한다.

싱가포르에서 바디케어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의 관할 하에 있고 HSA에 의하면 바디케어 제품은 화장품 품목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對싱가포르 바디케어 제품 수출에는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ASEAN Cosmetic Committee)가 제정한 ACD(ASEAN Cosmetic Directive)가 적용되며, 이는 동남아시아의 화장품 무역과 관련된 기술적인 장벽을 없애고자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 관리규정으로, 모든 ASEAN 회원국가에 ACD가 적용된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현지 바이어(유통업체)가 HSA에 사전 제품을 등록하여 유통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시사점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액체 비누 제품 중 일본 K사는 천연 향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한 뽕나무 추출물을 활용해 연약한 민감성 피부를 집중 케어할 수 있는 항균 포밍 핸드 비누를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현지 R사는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수제 비누를 만들어 판매 천연 유기농 제품 강점을 마케팅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자료: 브랜드 자사 웹사이트]

현지 바디케어 제품 유통사인 S사 대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많은 브랜드가 싱가포르에 진출하여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타 브랜드 대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혹은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현지 시장 동향에 맞춰 한국 제품의 높은 품질 및 우수성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본다면,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The Straits Times 등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일본 액세서리 주얼리 시장 동향

-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로 회복기세
- 온라인 마케팅 확대, 한류로 인한 시장진출 기회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신변용 모조 세화류
HS CODE	7117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재무성 무역통계]

시장 동향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의 일본 국내 주얼리 소매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7.4%인 9624억 엔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시장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점 회복 기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 20% 가까이 침체되었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외출금지, 거리두기 등의 조치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감 증폭과 여행, 이벤트, 외식 지출분을 다른 곳에 소비하고자 하는 보복 소비 경향이 주얼리 시장이 확대될 수 있던 원인 중 하나라고도 분석된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연간 상업시설 휴업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장식품 판매 시 중요한 판매 채널이 되는 이벤트 개최도 예정대로 행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117.4% 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보복 소비 등 2021년과 거의 비슷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의 국내 주얼리 소매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4.1%인 1조 14억 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HS CODE 7117의 수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한번 침체기를 맞이한 적이 있으나 현재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이 전체 수입의 42.8%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1.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중국에 이어 2위 수입국이 되었었다.

<수입 규모>

(단위: 달러, kg)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세계	24,212,331	181,065	26,729,281	254,358	19,774,325	160,631	28,458,157	224,841
1	중국	9,566,084	140,513	12,431,556	215,175	8,478,020	134,357	11,884,237	186,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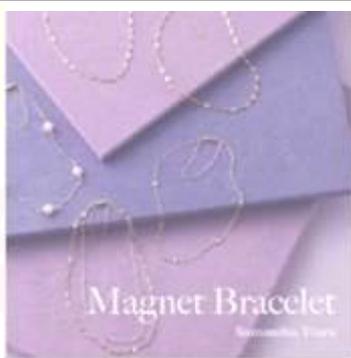
2	이탈리아	3,073,656	2,188	3,452,681	2,820	2,801,916	2,237	4,832,256	3,913
3	한국	3,913,814	21,012	4,185,219	24,083	3,070,578	16,418	3,236,068	16,809
4	프랑스	2,481,377	1,129	2,322,153	1,189	1,968,845	933	2,638,404	8,351
5	독일	253,789	178	443,832	327	692,236	997	2,019,500	2,152
6	태국	2,071,403	2,897	1,442,709	3,328	1,059,840	2,055	1,757,955	2,908
7	포르투갈			279,994	251	364,136	617	837,637	918
8	스페인	357,790	385	358,499	311	343,237	279	378,435	371
9	미국	432,322	5,055	397,724	1,221	372,354	404	214,038	322
10	베트남	948,280	2,260	314,954	1,695	104,790	714	187,894	711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쟁 동향

일본 액세서리 시장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특정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ESTELLE HD, Samantha Thavasa Japan Limited, NEW ART HD, TASAKI 등이 있다.

<기업 정보 및 매출액> (단위: 억 엔)

기업명	매출액	홈페이지	이미지
ESTELLE HD	299	as-estelle.co.jp	
Samantha Thavasa Japan Limited	253	samantha.co.jp/group	

NEW ART HD	187	newart-ir.jp	
TASAKI	170	tasaki.co.jp	
MILK	127	eteweb.com	
VERITE	72	verite.jp	

[자료: 업계 동향.com, 각 사 홈페이지에서 모은 자료 바탕으로 나고야무역관 정리]

유통구조

상사·메이커 → 도매업 → 소매업 → 소비자가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다. 소매업의 경우 전문점, 양판점, 백화점 등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 OEM의 형태로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19 전에는 일본 소매상이나 상사가 한국 제품을 직접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구입한 후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후 SNS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D to C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메이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 및 인증정보

거래 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단위: %)

구분	관세율
기본	5.6
WTO 협정	3.7
RCEP	3.2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인증의 경우, 귀걸이 등 몸을 장식하는 제품의 경우 가공 정도에 따라 장난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액세서리의 모양이나 제작 재료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경우에 따라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사점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화되면서 특정 소비자를 겨냥하여 다품종·소량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상품 공지를 시행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SNS 시장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타겟층인 결혼반지를 구입하는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도시 HD에서는 EC사이트를 확대하였고,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EC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한 8월 9,000만 엔 이었다고 한다.

한국 제품 바이어 N씨는 'K-POP을 비롯한 한류 붐이 계속되고 있고,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가 작용한 액세서리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은 SNS등을 이용한 마케팅을 비롯한 D to C를 중심으로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고야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자료원: 각사 홈페이지, 재무성 무역통계, 경제산업성, PR Times, 닛케이, 나고야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중국 이차전지 제조용 황산망간 동향

- 중국이 이차전지용 황산망간 최대 생산 국가
-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필수소재로 안정적인 수급책 마련 필요

개요

황산망간은 리튬전지 양극재 생산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소재이다. 이차전지 생산에 많은 양을 소요하진 않지만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데 필수인 소재이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 발생 시 전기차 가치사슬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다. 특히 망간은 매장량이 풍부하여 니켈이나 메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16년 1월 1일 “HG/T 4823-2015 전지용 황산망간(电池用硫酸锰)”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화공산업의 제품별 표준과 기준을 수립한 문서로, 주로 이차리튬배터리 양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황산망간 제품의 스펙, 실험방법, 검사검험 규칙, 라벨, 포장, 운수 및 저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지용 황산망간의 분자식은 $MnSO_4 \cdot H_2O$ 이며, 외관상 옅은 분백색을 띠는 것, 세부적인 기술 요구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전지용 황산망간 문서>

ICS 71.060.50
G 12
备案号: 50865—2015

HG

中华人民共和国化工行业标准

HG/T 4823—2015

电池用硫酸锰

Manganese sulfate for battery materials

[자료: 중국 공신부(工信部)]

생산 현황

중국은 이차전지용 황산망간의 최대생산국으로 생산능력은 전 세계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1년 중국의 이차전지용 황산망간의 생산량은 15만1630톤에 달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이차전지 산업도 빠르게 발전했고, 양극재의 소재인 황산망간의 생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황산망간 자체의 총생산량은 31만 톤이었고, 주요 생산지역은 구이저우(貴州), 광시(廣西), 후난(湖南) 등이다.

<지역별 황산망간 생산량>
(단위: 만 톤)

구이저우(貴州)	광시(廣西)	후난(湖南)	푸젠(福建)
18	9	1.1	1
후베이(湖北)	저장(浙江)	광둥(廣東)	산시(陝西)
0.7	0.5	0.4	0.4

[자료: 상하이유색금속망]

한편 2022년 1~9월 중국의 황산망간 생산량은 19만97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생산량은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하이유색금속망(上海有色網)은 현재 중국 정부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구입세 면제 등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배터리 및 관련소재의 수요가 증가했고, 해외의 전구체 수요증가에 힘입어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4분기 시장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월 생산량은 평균 2만2000톤에서 3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이차전지용 황산망간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

기간	2021년		2022년 1~9월	
	연간	1~9월		증감률
생산량	151.6	78.6	199.7	154.1

[자료: 상하이유색금속망]

한편 중국내 망간제품 생산 최대기업인 Tianyuan Manganese Industry Group(天元锰业集團)은 2022년 3월 고순도 황산망간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2024년까지 3기에 걸쳐 각각 30만 톤, 30만 톤, 40만 톤씩 총 100만 톤의 생산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공장건설이 다소 지연됐으나, 12월부터는 1기 공장의 양산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현황

올해 가격 자체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4~5월간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와 그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 등 이유로 재고가 많이 누적된 영향이 크다. 특히 전년도 홈코노미의 발전으로 각종 디지털 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는 경기침체로 디지털 기기 수요가 감소했고,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구체 수요만으로는 가격 하락세를 방어하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 원부자재 가격 모두 상승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시장 공급이 충분하고, 또 장기 계약에 따른 공급건 외 단기계약 성사 건이 적어, 가격 형성에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기차 구입보조금 지급이 곧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구체 생산을 위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12월 중 공급은 다소 타이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차전지용 황산망간 가격 추이>
(단위: 위안/톤)

1.2	2.25	3.4	4.15	5.6	5.20	7.15	8.12	9.20	10.14	11.9
10,000	10,700	10,850	9,850	8,400	7,800	7,200	6,600	6,500	6,475	6,500

[자료: 상하이유색금속망]

수출현황

이차전지 제조용 황산망간의 중국 HS 코드는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기타 황산염(28332990)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해당 HS 코드를 통해서는 중국의 수출액이나 수출량을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국의 HS 코드는 별도로 지정(2833293010)돼 있으며, 해당 HS 코드를 통해 중국의 대한 수출액과 수출량은 알 수 있다.

2021년까지 한국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90% 이상이였으나, 2022년에는 벨기에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며 중국 의존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 집중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벨기에의 Umicore, Prince Minerals 등 양극재에 사용되는 소재 공급이 가능한 기업들과 장기공급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출(HS 28332990) 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번	국가/지역	2018	2019	2020	2021	2022.1~9.	
						금액	증감률
1	일본	106,916	57,182	58,590	88,261	119,178	111.5
2	미국	22,426	10,925	14,935	18,413	25,163	115.3
3	한국	62,123	39,939	31,241	42,869	18,181	40.6
4	브라질	2,781	4,818	3,373	2,951	13,577	1041.3
5	칠레	10,580	5,701	5,802	9,258	8,722	34.3
	총계	281,129	224,441	193,621	265,429	256,838	42.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수입(HS 2833293010) 추이>
(단위: 천 달러, 톤)

연번	국가	2020		2021		2022 1~9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1	벨기에	0	0	47	38	429	254
2	중국	2,155	2,187	1,356	1,360	211	142
	총계	2,155	2,187	1,403	1,398	640	396

[자료: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현재까지 한국은 황산망간 수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체 공급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L기업과 중국 H기업은 합작으로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 생산공장을 경북 구미에 설립하고 있으며, 한국 S기업은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핵심소재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술로 황산망간을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차전지용 황산망간의 전세계 공급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기업의 생산기반 확충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및 관련 소재의 안정적인 수급이 향후 전기차 증가 및 산업발전의 핵심인 만큼, 소재 관련 기업들의 발굴과 더불어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상하이유색금속망(上海有色网), baiinfo, 철합금온라인(铁合金在线),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部),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등

첨부 : HG/T 4823-2015 전지용 황산망간 표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